

한빛원전 핵폐기장 건립 재시동 움직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한수원, 부지내 후보지 3곳 압축...여론수렴 후 실시계획

2024년 임시저장수조 포화...2035년까지 보관 방침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로드맵(핵폐기물 처리 로드맵)’에 따라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에 건설할 임시저장시설 후보지로 3곳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월 영광군에 국장급 간부가 내려가 정부, 한수원, 영광군 등 3자 협의회를 꾸려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설 건립 절차를 서두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을 오는 2024년부터 2035년(중간처분장 가동 전)까지 보관할 임시저장시설 후보지 3곳을 압축했다.

임시저장시설 부지는 1만5000㎡ 규모로, 한수원 측은 지질조사와 기술검토 등

을 거쳐 3곳 모두 시설 건립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곳에 300여개의 사일로(콘크리트로 밀폐된 건식저장시설)를 건설해 폐연료봉을 보관했다가 중간처분장으로 옮긴 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오는 2025년께 들어설 예정인 영구처분장으로 보낸다게 한수원과 정부 구상이다.

한수원 측은 올해 안으로 주민 등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시설 설계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인허가 준비에 들어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2년, 시설 건립에 3~4년을 들여 오는 2024년 한빛원전 임시저장 수조가 포화하기 전 운영 준비를 마친다는 게 한수원 측 잠정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과 정부의 계획은 영광주민 등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달성이 불



임시 저장 수조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가능하거나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한빛원전 원자로서 타고남은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물탱크)가 오는 2024년 가득 차게 돼 발전 중단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해야한다는 입장을 지난 5월 발표하자, “임시시설이 영광에 건립되면 영광은 핵폐기장으로 전락한다”는 반응이 영광주민 등 지역사회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6월 시설 건립에 적합한 곳을 찾으려고 영광원전 부지에서 지질조사를 하는 등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주민 반발에 밀려 중단할 정도였다.

최은영 영광군의원(원전특위 위원장)은 “올 초 산업부 담당 국장이 부임 인사차 영광에 내려와 나름의 계획 내지 설명을 간단히 한 것 뿐이지 정부, 한수원, 영광지역 3자 협의체 구성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 원자력전문가는 “임시저장시설 건립이 무산된다면 오는 2024년 영광 한빛원전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 한수원, 지역사회가 건립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시간을 보내다 몇 년 후 줄속으로 건립할 바에는 이제라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정월 전통 장 담그기

7일 오전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장독대에서 주민들이 장 담글 채비를 하고 있다. 이 마을은 1991년부터 부녀회 주축으로 토종 콩, 깨끗한 물, 천연염료로 전통 장을 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포켓몬’ 잡다 신상 털릴라

게임 앱 통한 정보 유출·악성코드 유포...권한 차단 설정 필요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게임과 관련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찰청은 포켓몬고 한국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게임정보 공유와 위치확인장치(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스

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고’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44개의 한국어 앱을 대상으로 요구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히 포켓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기기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앱이나 위치, 주소록 등 많게는

30개가 넘는 개인정보(원한)의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앱의 목적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이미 설치했다면 지우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권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도 포켓몬고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레벨업을 대신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은제기자 ej621@

광주서부교육장 김홍식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김홍식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을 임명하는 등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140명(초등 75명·중등 65명), 교사 2590명 등에 대한 인사를 7일 단행했다. <명단 22면>

유아교육진흥원장에는 지상숙 효천다솜유치원 원장이,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에는 김성남 봉산중 교장이 발령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6 해질 15:22
해짐 18:08 달짐 04:47

다시 추워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은뒤 흐림	-2/6
목포	흐린뒤 흐림	-1/4
여수	맑은뒤 흐림	1/7
나주	맑은뒤 흐림	-3/5
완도	맑은뒤 흐림	0/5
구례	맑은뒤 흐림	-4/5
강진	맑은뒤 흐림	-2/6
해남	맑은뒤 흐림	-3/5
장성	맑은뒤 흐림	-4/5

보성	맑은뒤 흐림	-4/5
순천	맑은뒤 흐림	0/7
영광	맑은뒤 흐림	-4/3
진도	맑은뒤 흐림	2/4
진주	맑은뒤 흐림	-3/5
군산	맑은뒤 흐림	-4/4
남원	맑은뒤 흐림	2/4
축산도	맑은뒤 흐림	4/5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1.0~2.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4.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4:52	17:47	12:16	07:26
	00:42	13:35	19:37	07:37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1/2	-5/2	-4/4	-3/5	-3/6	-3/6	-2/9

조선대 개방이사 선임 갈등

이사 임기 25일 앞두고 이사회-대자협 충돌

조선대가 차기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사회 임기 임기가 오는 25일로 끝나지만 취임자 선출을 놓고 이사회-대학 구성원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학내 갈등 뿐 아니라 ‘이사회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선대는 8일 오후 1시30분 대학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주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자협은 지난달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사회가 추천한 5명의 위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대자협은 당시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가 추천한 ‘추천위원회’라는 지체를 제기했다. 이사회는 당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자협은 이후 ‘건학이념에 맞는 개방이사 선임기준’을 제시하며 이사회의 권한인 ‘개방이사 추천권’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 이들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로 광주시장, 광주시교육감,

전남도지사 등이 추천한 공직자 ▲조선대 총장·총동창회장 ▲전국적인 인물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 인물 6명을 추천하면 이사회가 3명을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

하지만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 이사회가 고유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개방이사 선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사회는 8일 정기 이사회를 열지만 대자협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안팎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 이사회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 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조선대 정관 24조)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향후 ‘이사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조선대는 오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며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 시민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http://council.namwon.go.kr>